



강진산단은 최근 5개의 기업과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강진군 제공

강진산단, 적극 투자유치로 분양 가속화

기업 4곳·호텔 1곳 등 전체 투자액 1천289억 원 규모 이승옥 군수 "임기 내 반드시 100% 분양 달성할 것"

강진산단이 기업들과의 대규모 투자협약을 통해 가파른 상승곡선을 그리며 지방산단의 모범으로 거듭나고 있다. 전남도와 강진군에 따르면 도와 강진군은 최근 강진군청 대회의실에서 자원순환 및 비료생산 공장을 세우는 기업 등 4곳과 호텔 1곳 등 모두 5개 기업과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이들 기업들의 전체 투자액은 1천289억 원으로 160여명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한다. 이번 투자 유치로 강진산단은 기존 10% 분양률을 30%대까지 끌어올려 분양률 저조에 허덕이는 대부분의 전남권 지방산단과 대조를 보이고 있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이승옥 강진군수, 위성식 강진군의회의장, 김용호, 차영수 전남도의원, 투자기업인 김기식 케이제이환경(주) 대표, 공희성 섬진강협동조합 대표, 김영모 명성호텔 대표, 서재석 코단판넬(주) 대표, 방지환 가온축산(주) 대표, 관계 공무원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협약을 체결한 케이제이환경(주)는 강진산단 2만4천136㎡부지에 1천억 원을 투자해 2019년까지 자원 순환 및 비료생산 공장을 건립한다. 공장이 본격 가동되면 52명의 새 일자리가 창출될 전망이다. 섬진강협동조합은 강진산단 9천362㎡

부지에 150억 원을 투자해 2019년까지 한우 및 육우 육가공 제조공장을 건립하게 된다. 공장이 완공되면 50명의 새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

명성호텔은 강진읍 평동리 주변 1천3㎡ 부지에 60억 원을 투자해 2019년까지 지하 1층 지상 7층 규모로 총 56실의 객실과 연회장, 식당 등 편의시설을 갖춘 관광호텔을 건립한다. 20명의 새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

코단판넬(주)는 강진산단 5천945㎡ 부지에 42억 원을 투자해 2019년까지 건축용 불연판넬 제조공장을 건립한다. 공장이 완공되면 20명이 새 일자리를 갖게 된다.

가온축산(주)는 강진산단 9천965㎡ 부지에 37억 원을 투자해 2019년까지 흑염소 육가공 공장을 건립한다. 공장이 완공되면 20명이 새 일자리를 갖게 된다.

강진산단의 분양실적은 민선 7기 이상

속 강진군수 취임 이래 적극적인 투자유치 정책의 결과물로 여겨진다.

강진군은 군민포상제를 도입해 전 군민에게 투자유치에 대한 관심과 동참을 유도하고 있다. 기업을 알선한 군민에게 기여도와 투자규모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한다. 공무원들의 경우 투자유치 유공 직원에게는 인사우대 가점이 부여된다.

이승옥 강진군수는 "투자를 결정해주시는 기업들에 감사하다"며 "군민과 향우, 강진군 산하 전 공직자와 함께 기업하기 좋은 강진 만들기에 전념하고 임기 내에 반드시 100% 분양을 해내겠다"고 말했다. 며 기업유치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강진산단은 이번 투자협약으로 전체 분양대상 41만318㎡ 가운데 11만6천772㎡가 분양돼 28.5%의 분양률을 보이고 있다. /강진=전원빈 기자 wonbin@

목포, 청년 창업가 성공 견인한다

전문교육·지원금 최대 1천500만원 지원

목포시가 창업을 꿈꾸는 청년을 도

운다. 시는 참신한 창업 아이템을 가진 청년(만18~39세) 예비 창업가 및 창업 1년 이내의 청년 초기 창업가 20명(팀)을 선발해 전문적인 창업교육을 실시하고, 창업지원금을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우수한 아이템을 가지고 있는 예비 창업가, 기술력과 전문성을 갖추고 있으나 사업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창업 초기의 스타트업(Start-up) 기업 등의 효과적인 사업 안정화를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고용창출, 매출증가는 물론 청년 창업생태계 조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전문가 멘토링, 컨설팅 등 체계적 창업교육과 함께 창업초기 재정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1인(팀)당 최대 1천500만원까지 지원금을 보조한다.

시는 창업 및 보육지원 전문기관인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와 함께 사업자 발굴에서부터 비즈니스 모델 수립 등 전반적인 교육 과정을 운영한다.

참가 희망자는 오는 28일까지 사업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해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 서부권상담실에 이메일(kjh4380@ccei.kr)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 제출서류와 서식은 시 홈페이지(www.mokpo.go.kr)와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 홈페이지(https://ccei.creativekorea.or.kr/jeonnam)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사 자세한 사항은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 서부권상담실(661-1971)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청년이 성공적으로 창업에 안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니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목포=박성태 기자 tst5866@



신안군은 최근 정부서울청사에서 흑산공항 건설여부 종합토론회에 참석했다.

신안 '흑산공항' 건설여부 종합토론회

환경부 국립공립위원회는 최근 정부서울청사 별관 3층 외교부 국제회의실에서 신안 흑산공항 건설여부 종합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공항건설에 따른 국립공원의 가치 훼손 수용 여부, 항공사고 우려 등의 안전 문제, 주민 이동권을 보장하는 다른 실질적인 대안, 대체서식지의 적합성, 경제적 타당성 등에 대해 전문가와 지역주민,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열었다.

서울지방항공청 공항시설 이보영 국장과 국립공원을 지키는 시민의 모임 윤주옥 공동대표가 발제했다.

그다음으로는 사업자 추천 3명과, 환경단체 추천 3명이 지정토론을 했다. 사업자 추천으로는 박우량 신안군수, 도서 섬지역 자원위원단 윤미숙 위원, 유신 오기석 상무가 선정됐다.

이번 토론회에서 신안군은 경제성, 안전성, 환경성 문제에 대한 충분한 검토 자료와 주민소득과 경제 활성화 방안을 요구 제시했다.

신안군 관계자는 "오는 19일에 열릴 흑산공항 건설 재심의 통과를 위해 남은 시간 동안 건설반대의 의견수렴 청취 및 전략적 대응을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신안=박성태 기자 tst5866@

해남 '13vs133 신화' 재현했다

명량대첩축제가서 울돌목 해상전투 등 선보여

2018 명량대첩축제가 호국의 바다 울돌목에서 화려하게 개막했다.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사흘간 열리는 명량대첩축제는 이순신 장군의 영정이 모셔진 해남 충무사에서 울리는 약무호남제례를 시작으로 해남우수영강강술래 공연, 해남동초교 오케스트라 공연, 울돌목 해상 풍물 뱃놀이, 해군악대 기율음악

회 등 다채로운 무대가 이어졌다.

더불어 조선시대의 분위기를 재현한 축제장과 수군재건로 걷기 체험장으로 탈바꿈한 진도대교에서는 각종 가족단위 체험 행사를 비롯해 수문장 교대식 등 명량대첩 당시를 생생히 느낄 수 있는 행사가 진행돼 관람객들을 불러 모았다.

명량대첩축제의 백미로 꼽히는 명량대

첩 해전재현은 울돌목 바다에서 지난 8일 진행됐다. 인근 지역 주민들이 조선수군과 왜군으로 나눠 울돌목 바다위에서 명량해전 당시와 같은 규모의 해상전투를 재현하는 행사로 올해는 영화 '명량'을 연출했던 특수효과 제작팀이 참여해 수준급 폭발 및 침몰 장면 등을 재현, 실제 전투와 같은 박진감있는 연출을 보였다.

특히 올해는 축제의 하이라이트인 해전 재현이 늦은 시간에 열리는 만큼 관광객들이 축제장에서 오랫동안 즐기고, 머물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강화했다. 밤에는 우수영 명량대첩해전사 기념 전

시관 외벽을 활용한 영상공연 미디어파사드가 펼쳐지며, 강강술래 EDM 밤 및 레이저 퍼포먼스, OST 가요제 등이 이어졌다.

또한 명량캠핑존 운영과 해군 선박탑승 체험, 조선수군학교 등 명량대첩의 역사성을 현장에서 느끼고, 관광객들이 축제장에 오래 머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들을 신설해 운영해 관람객들로 하여금 큰 호응을 얻었다.

군 관계자는 "해전재현을 비롯해 축제의 즐거움은 물론 역사문화의 전통을 느낄 수 있는 의미있는 축제가 됐다"고 전했다. /조광태 기자 ingopress@

전남도민일보
네트워크 제휴사

세상을 읽는 바른 신문